“보살계 통해 수행하는 불자 되길”

‘백양사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11월 16일 대웅전 앞 금강계단서
대중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8년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에서 2000여 사부대중은 청정한 불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백양사가 2000여 불자에게 대승불교 수행자가 지녀야할 보살계를 전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이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계아사리 백양사 율주 혜권 스님, 갈마아사리 성오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교수 아사리 백양사 율원장 법장 스님 등 증명법사를 비롯해 2000여 명의 백양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2년 만에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1부 수계의식과 2부 백양사 본·말사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로 나선 스님들은 2000여 사부대중에 대승불교 수행자가 지녀야 할 10중 대계와 48경계 등 보살계를 전했다.

갈마아사리 성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양사의 율맥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전통”이라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가 나올 수 없다. 오늘 참여한 신도분들은 보살계를 통해 수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계 동참제자들은 참회진언을 외우며, 연비의식을 통해 청정한 불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백양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어울림한마당에는 각 사찰을 대표해 12개 팀이 노래자랑에 참여했다. 수안 스님, 통기타 가수 박강수, 트롯신동 김성록, 국악팀 금강대중 등이 초청 가수로 무대에 올라 흥을 더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백암산 단풍과 교구 신도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공 스님 法音 새기고 공부해야”

수덕사, 정혜사 · 능인선원서
‘만공 스님 78주기 다례재’
설정 스님 등 사부대중 동참해


만공 스님의 사상 ‘세계일화’가 새겨진 만공탑을 향해 사부대중이 예를 올리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선승(禪僧)이었던 만공 스님의 열반 78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11월 20일 덕숭산 산내 정혜사와 능인선원 일원에서 ‘만공 스님 열반 78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동국대 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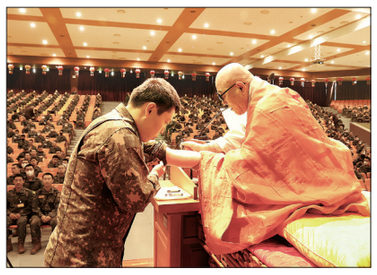
만공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제자로 현대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스님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조선총독부의 ‘대처승’ 불교정책을 반대하며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참 대중은 다례재에 앞서 만공 스님의 진영을 봉안한 금선대와 만공 스님을 상징하는 사상인 ‘세계일화(세계는 한 송이의 꽃)’가 새겨진 만공탑을 참배했다.

설정 스님은 “스님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일러준다”며 “만공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법음을 새기고 공부하는 것이 만공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다”라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육군장병 1100명,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

11월 16일 논산 호국연무사서
서초구 사암聯 회장 법안 스님
“오계를 삶의 지표로 삼을 것”


암연합회 스님과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을 비롯한 군승법사들이 자리했다. 연비의식은 전북 익산시 군포교지원팀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육군장병 1100명이 법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서울서초구사암연합회는 11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육군장병 1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 및 연비의식, 계첩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 오른 법안 스님은 대표 훈련병들에게 연비의식을 행하고 수계증을 전달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오계를 받아 생활의 신조로 삼으라”며 “여러분이 미래의 부처님이라 믿고 부처님의 명호를 독송하며 삶의 지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는 서초구사

울산불교종단聯, 전통음식문화한마당

11월 17일, 울산 신흥사서
전통음식 전시 및 소개 등



울산불교종단연합회와 울산 신흥사가 제13회 울산전통음식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와 울산 신흥사(주지 인경 스님)는 11월 17일 신흥사 신성루에서 ‘한 입에 담긴 계절, 한 상에 펼쳐진 이야기’를 주제로 울산 전통음식 한마당을 열었다.

신흥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은 전통음식 문화의 가치와 멋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행사에서 선보인 음식을 양약으로 삼아 모든 사부대중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은 “신흥사에서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불교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울산지역민이 다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내 신성루에서는 사찰음식 장인 지견 스님의 전통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사찰식 장아찌, 죽, 사찰초밥과 주먹밥 등 사찰의 일상식과 스님들의 삭발식에 먹는 특별식들이 선보여졌다. 궁중떡볶이, 국화빵 등 우리 전통음식도 차려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요사채 ‘능인당’ 낙성식

11월 17일, 경내 특설무대서
“수행 · 복지도량으로 성장”



익산 정각사가 요사채 조성을 기념하는 낙성식과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11월 17일, 경내 극락전 앞 특설무대에서 능인당 낙성식과 ‘익산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능인당 낙성식 기념법회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과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의 권공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상량기 낭독 △치사 △축사 △현판제막식 △축가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능인당 낙성식을 계기로 정각사가 익산 서부지역 중심 사찰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수행과 복지를 함께 실천하는 도량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낙성식을 봉행한 정각사 능인당은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평 30평의 ‘ㄱ’자 구조로 주심포양식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조성됐다. 능인당의 현판은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이 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백미 2000kg 나눔

11월 18일 광주 서구청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1월 1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 600만원 상당의 백미 2000kg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최성휴 고문, 문원진 신도회장, 김종금 여자회장, 전재성 남자부회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문원진 신도회장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금을 마련한다”며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강 청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000kg의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휘정 스님, 아산불교사암聯 9대 회장 취임

아산불자신도회 결성 추진



아산시 불교를 이끄는 아산불교사암연합회장에 봉수사 한주 휘정 스님이 취임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16일 아산 봉수사 불사리탑 앞 특설무대에서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휘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마음 바탕은 원래 하나니 모두 그곳에서 출발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함께 연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산 불자들이 참여하는 ‘아산 통합 불자회’ 결성을 천명했다.

전임 회장 송운 스님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정진했다. 25년간 회장을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주 경상국립대, 新 불교동아리방 개원

“서원 이루는 도량되길”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연화(회장 천성하)가 11월 18일 새로운 불교동아리방을 개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창원 우곡사 석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청련암 원명 스님, 약사정사 진여 스님, 용화사 운선 스님, 송덕사 덕원 스님, 김용진 지도교수, 불교동아리 연화 임원진·회원들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동아리 초대회장 배설화 법우부터 현 회장 천성하 법우까지, 모든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모두가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원사, 지역 어르신 팔순 잔치 열다

전통죽, 선물 전달하며 격려



무등산 동원사가 지역 어르신을 격려하는 ‘팔순 잔치’를 개최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11월 19일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에게 손수 만든 호박죽 350그릇을 선물했다.〈사진〉 동원사는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매월 1회씩 대인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지장 스님은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이 온 듯하다”며 “좁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호박죽으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지역 어르신에 김장김치 나눔

지역 어르신 100가구에



자비실천 도량 전북 진안 쌍봉사가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앞마당에서 쌍봉사신도회(회장 장미선), 쌍봉사 섬김봉사단·반찬봉사단 자원봉사자들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1500kg가량의 백김치를 만들고 10kg 용량 김치통에 나눠 담아 취약계층 100여 가구와 경로당,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했다.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따듯한 겨울을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